수리가 당락 가른다

2012 수능 계획 … 응시 과목 최대 7개·수리 '나' 미적분 통계 포함

교육과학기술부가 22일 발표한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이 시험을 치르는 고등학교 2학년들이 고교에 입학하기 직전인 2008년 12월 예고했던 것이다. 2011학년도까지의 수능과 비교하면 선택할 수 있는 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이 1과목 줄고, 수리 영역의 출제 범위가 확대 조정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수리 영역의 시험 준비 부담이 늘어나고, 수능 고득점 여부와 대입 당락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탐구 영역 선택 1과목 축소=현행 수능 응시 영역(과목)은 언어·수리·외국어(영어) 영역에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4과목, 또 제2외국어·한문 영역 1과목을 합쳐 최대 8개다. 현 정부 출범 직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선택과목을 2개를 넘지 않도록 해 응시 영역(과목)을 최대 5개로 줄이는 안을 내놨으나 교과부가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을 최대 4개에서 3개로 줄이는 쪽으로 조정했다. 탐구 및 제2외국어 · 한문의 응시 과목을 너무 줄이면 국·영·수 위주의 학습이 심화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판단에서였다.

따라서 2012학년도 수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은 언어·수리·외국어 영역에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3과목, 제2외국어·한문 영역 1과목 등 최대 7개 영역(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시험 영역이나 과목은 수험생이 모두 자유롭게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수리 영역 출제 범위 확대=

■ 영역별 문항수, 선택 과목

구분영역		문항수	시험시간(분)	출제범위 (선택과목)
언어		50	80	범교과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
수리(택1)	가형	30	100	수학Ⅰ+수학Ⅱ+적분과 통계+기하와 벡터
	나형			수학Ⅰ+미적분과 통계 기본
외국어 (영어)		50	70	범교과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
탐구(택1)	사회탐구	과목당20	과목당30분 (최대90분)	윤리(윤리와 사상+전통윤리), 국사, 한국지리, 세계 지리, 경제 지리,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법과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등 11과목 중 최대 택 3
	과학탐구	과목당20	과목당30분 (최대90분)	물리Ⅰ, 화학Ⅰ, 생물Ⅰ, 지구과학Ⅰ, 물리Ⅱ, 화학Ⅱ, 생물Ⅱ, 지구과학Ⅱ 등 8과목 중 최대 택 3
	직업탐구	과목당20	과목당30분 (최대90분)	농업 정보 관리, 정보 기술 기초, 컴퓨터 일반, 수산·해운 정보 처리 등 컴퓨터관련 4과목 중 택 1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공업 입문, 기초 제도, 상업 경제, 회계 원리, 수산 일반, 해사 일반, 해양 일반, 인간 발달, 식품과 영양, 디자인 일반, 프로그래밍 등 전공 관련 13과목 중 최대 택 2
제2외국어/한문		과목당30	40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한문 등 8과목 중 택 1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수리 영역의 출제 범위는 종전보다 확대되고 가형의 선택과목이 없어진다.

자연계 응시자들이 주로 선택하는 수리 가형의 경우 현재 '수학Ⅰ' '수학Ⅱ' 2개 과목은 필수이고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등 3개 선택과목 중 1개를 고르게 돼 있으며 수학Ⅰ 12문항, 수학Ⅱ 13문항, 선택과목 5문항 등 30문항이 나온다. 2012학년도 시험은 '수학Ⅰ' '수학Ⅱ'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등 4개 과목으로 개편돼 모두 필수이고, 문항 비율은 각 과목 25%로 7~8문항씩 출제된다.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등 3개 선택과목에서 '이산수학'의 내용은 제외하고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는 '적분과 통계'에 합쳐졌으며 '기하와 벡터'는 수학Ⅱ에 있던 내용을 별도 과목으로 독립시킨 것이다.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리 나형은 현행 '수학Ⅰ'에서만 30문항이 출제됐으나 '미적분과 통계기본'이 추가돼 15문항씩 나온다.

인문계 학생들은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2002학년도부터 미적분을 배우지 않았었으나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인문계 미적분이 부활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학Ⅰ'은 모든 문항을 가, 나형 공통으로 출제하고 가형 '수학Ⅱ'와 '적분과 통계'는 나형 과목인 '미적분과 통계기본'과 내용 요소가 같은 경우 공통 문항을 출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하와 벡터'에는 '미적분과 통계기본'과 공통 내용이 없다.

/연합뉴스

"지구를 살리자" 제40회 지구의 날을 맞아 22일 오후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박광태 광주시장과 강박원 시의회 의장, 환경단체회원 등 참가자들이 "지구를 살리자"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검사 향응' 진상조사

검찰, 조사단 가동

검찰 향응·성접대 의혹에 대한 검찰의 자체 진상조사가 22일부터 시작됐다.

향응·성접대 사실을 밝힌 정씨측 관계자는 "검찰이 이날 오후 진상조사를 할 내용이 있다며 부산지검에 나와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 자체 진상조사단은 채동욱 대전고검장을 단장으로 일단 6명의 조사위원으로 구성됐다.

검찰은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정씨의 진정내용을 확인하는 등 기초 조사를 벌일 예정으로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씨는 23일로 예정된 검찰의 구속집행정지 취소 요청에 대한 법원의 심문에 대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씨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정씨 진술 문건 통해 재구성한 향응 실태

전근 땐 서울로 올라가 2차 성접대 평검사 10여명 몰고와 "또 술 사라"

건설업자 정 씨에게서 건네 받은 문건 내용과 정씨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었다. 25년 동안 이뤄졌던 검사들에 대한 접대 의혹을 정 씨의 진술과 문건 등을 통해 재구성했다.

◇향응받은 검사들의 행태=접대를 받은 검사의 행동들도 제각각이었다.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촌지를 받는 검사가 있는 반면 촌지를 거절하는 올곧은 검사도 있었다. 정씨가 검찰에 직접 찾아가 촌지를 내놓으면 "이렇게 또 주면 우짜나" 하면서도 대부분 자연스럽게 받았다.

자신이 접대를 받은 뒤 부하직원을 데리고 또 다시 접대받는 뻔뻔한 검사도 있었다. 지난해 3월 정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한 부장검사는 자신과 함께 근무하는 평검사 10명을 데리고 나와 정씨에게 접대를 받았다.

특히 룸살롱에 여검사가 동석할 때는 노래를 선곡해줄 여종업원 1명만 불렀고, 여 검사들이 일찍 빠져나가면 다시 일부 검사들이 2차를 가기도 했다.

정씨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날도 있었다. 2000년 어느 날. D검사가 부장으로 진급해 ○○지청으로 발령받아 평검사 5~6명과 함께 광안리의 횟집에서 저녁을 먹고 2차로 인근 룸살롱에 갔다. 갑자기 부장검사가 정씨에게 "오늘은 술값 계산하지 마이소"라고 해, 이유를 물었더니 "스폰서가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스폰서는 다름 아닌 그 술집 사장이었다.

◇촌지와 원정 접대=촌지를 주는 날에는 어김없이 경리를 시켜 신권으로 바꾼 뒤 봉투에 담았다. 그리고 수행비서와 함께 검찰로 갔다. 촌지는 매달 두 번씩 전달됐는데, 지청장은 한 달에 200만원, 검사와 사무장은 60만원씩 줬다. 체육대회나 등산대회 등 공식 행사때는 100만~200만원씩 제공했다.

정씨의 접대는 부산과 경남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지역에 근무하던 검사들이 서울로 올라가면 서울까지 가서 접대를 했다. 정씨는 서울에서 주로 역삼동에 있는 한 술집에서 검사들을 접대했다. 폭탄주는 물론 2차 성접대도 빠지지 않았다.

접대를 시작한 1984년부터 2000년까지는 주로 촌지나 전별금 등을 제공했고 2000년 이후는 촌지 전달 보다는 향응과 성접대가 주를 이뤘다.

◇검찰과의 인연=20대 후반의 나이에 법무부와 검찰에서 위촉하는 갱생보호위원과 소년선도위원으로 10여 년간 활동하면서 검사들과 인연을 맺었고, 이 인연으로 고급 외제승용차를 타고 검찰청을 스스럼없이 드나들었다. 특히 명절 때는 촌지를 주기 위해 직접 검찰청을 방문하는 게 주요 업무중의 하나였다. 〈부산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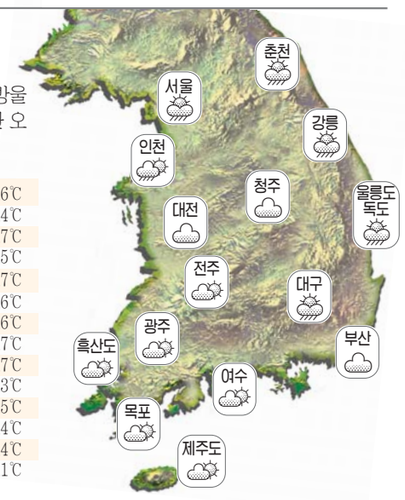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51분 해짐 19시 11분 달뜸 13시 28분 달짐 02시 16분

비구름, 안녕~

오전에는 흐리고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지만 오후에는 대체로 맑겠다.

광 주	흐린뒤맑음	8/16℃
목 포	흐린뒤맑음	8/14℃
여 수	흐린뒤맑음	8/17℃
완 도	흐린뒤맑음	7/15℃
구 례	흐린뒤맑음	7/17℃
해 남	흐린뒤맑음	6/16℃
장 흥	흐린뒤맑음	6/16℃
고 흥	흐린뒤맑음	7/17℃
순 천	흐린뒤맑음	8/17℃
영 광	흐린뒤맑음	6/13℃
진 도	흐린뒤맑음	7/15℃
전 주	흐린뒤맑음	7/14℃
남 원	흐린뒤맑음	5/14℃
흑산도	흐린뒤맑음	7/11℃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먼바다	북서~북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먼바다	북서~북	1.5~2.5m

자외선지수 보통, 식중독지수 주의, 황사지수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1.0~2.0m
먼바다	서~북서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먼바다	북서~북	1.5~2.5m

	밀물	썰물
목포	09:24 21:51	01:58 15:14
여수	04:41 17:20	11:04 23:15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4(토)	25(일)	26(월)	27(화)	28(수)	29(목)
날 씨						
최저/최고	4/19	5/21	10/15	10/18	8/20	7/19

광주 초등 6학년 9월부터 무상급식

광주지역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오는 9월부터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된다.

광주시교육청은 21일 "올 3월부터 초등학생 1~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무상급식을 9월부터는 6학년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2학년에 이어 매년 1개학년씩 확대하기로한 무상급식 계획 때문에 현재 3학년 이상 학생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학부모들의 건의를 반영한 조치다.

시 교육청은 올해 117억원을 들여 초등학교 1~2학년 3만2742명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중이며, 오는 9월부터 4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초등학교 6학년 2만2288명도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무상급식을 받게되는 초등학생은 전체 초등학생(11만6648명)의 47%에 이르는 5만5030명이며, 소요 예산은 157억원이다.

시 교육청은 올해 1~2, 6학년에 이어 2011년 3학년 등 매년 무상급식 대상 학년을 늘려 오는 2013년까지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실현할 계획이다. 2013년에는 전체 초등학생의 숫자가 현재 11만6648명에서 9만7012명으로 1만9636명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연간 349억원의 무상급식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경찰서장 2회 연속 못한다 총경인사 쇄신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이 일선 서장을 한차례 했다면 다음번에는 반드시 지방경찰청에서 참모로 근무해야 한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장을 2회 연속으로 하지 못하게 정한 경찰청 훈령 15조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교류인사 규칙' 일부개정안이 19일 열린 경찰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경찰은 이번 훈령 개정으로 총경급의 '서장 선호, 참모 기피' 현상을 제도적으로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